

구인사 개산 73년… "수행 공고히"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가 개산 73년을 맞아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구제중생 원력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6월 18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구인사 개산 73주년 기념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류한우 단양군수 당선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위대한 성현께서 사바에 나투시어 연화성지에 도량을 여시니 천태일승의 하얀 연꽃이 피어오름이라. 억조창생 구원받는 큰 도를 펼치시니 자비의 크나크신 권화이시라. 깊은 믿음으로 귀한 인연 기뻐하며 불심으로 화합하고 일심으로 수행하여 교시하신 거룩한 가르침을 만세에 이어가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기념사에서 "구인사 개산은 부처님의 정법이 새롭게 문을 연 날이고, 천태법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은 날이며, 일체중생이 성불의 희망을 품은 날"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구인사 개산의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정법수행과 광도중생의 원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자비사상·홍익인간 교육이념 실천 앞장"

Interview

정광학원 제13대 이사장 월우 스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8일 취임법회서 공식 취임
학교발전 방안 모색 비롯해
학생 권리향상에 힘쏟는다

"청소년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입니다. 무엇보다 큰 가치를 지닌 존재인 만큼 교육기관에서는 보다 더 값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불교종립 정광학원의 학생들이 부처님 자비사상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호남 유일의 불교종립인 정광학원 제13대 이사장에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취임했다. 월우 스님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6월 18일 대승원 법당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공식 취임했다. 법회에는 함병권 정광중학교 교장을 비롯해 정광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월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자비사상'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월우 스님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만큼 우선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발전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교직원을 포함해 모든 구성원들이 발원과 서원을 세워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권리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정광학원은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전인교육의 장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집착과 번뇌를 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남과 함께 견성성불 할 수 있다"며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월우 스님은 본지 인터뷰에서도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 대흥사 주지를 맡고 있는 월우 스님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유력한 대흥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님은 6월 28일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 조실 보선 스님, 향덕 스님과 함께 출국할 예정이다.

월우 스님은 "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1번째 등재가 기대되는 대흥사와 관련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소중한 문화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광학원은 1946년 만암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송광사·화엄사·대흥사·선암사 등 전남지역 5개 교구본사와 불교인들의 원력으로 창립됐다. 현재 정광중학교와 정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중이며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월우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2~14대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영암 도갑사 주지를 역임했다.

"화쟁사상으로 공동체 일구자"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제29회 호국충혼대법회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삼천사 회주)는 6월 20일 서울 진관사에서 '제29회 나라와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충혼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호국충혼대법회는 조계종 은평구협의회와 은평구청 불심회가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와 함께 주관했으며,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성불사 주지 선보 스님 등 불자 300여 명과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미경 구청장 당선인, 박주민·강병원 국회의원, 이재영 은평경찰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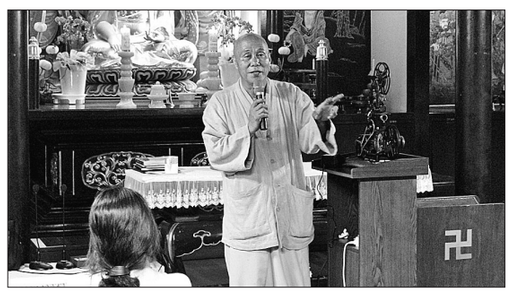
호국충혼대법회는 개회를 알리는 타종과 함께 촛불봉정,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장학금 전달,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강수향 씨의 추도무용과 이재영 은평경찰서장과 송아영 경사의 추모시 낭독 등도 이어졌다.

이날 성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삼혼은 한 되어 아득한 어둠 속에 헤매며, 칠백 또한 외로이 갈일을 잃었도다. 호국충혼 고혼 영가시여, 불이 청정심다 반야용선 타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소서"라고 추념했다.

나승복 은평구청 불심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이 땅의 우리들이 부처님의 화쟁사상으로 분단의 사슬을 풀고, 하루 속히 남북통일이 이뤄지기를 발원한다"며 "대화와 소통, 평화적 통일로 남북이 하나 돼 세계 속 대한민국 우뚝 서게 하소서"라고 말했다.

법회서는 '우리의 발원' 발표도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북한산 숲 보존 및 행복마을 구현,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서원했다. 이와 함께 전몰군경 가족 및 소외계층 자녀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총 2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도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기록영화 '만선시찰' 금강역사영화제 나와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 공개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올해 처음 열린 금강역사영화제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 '만선시찰'을 출품하고 일반에 공개했다.

6월 16일 동국사 대웅전에서 상영된 '만선시찰'은 1933년 5월 4일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에서 출발해 대전, 경성, 평양을 거쳐 만주까지 여행하고 5월 19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16일 동안의 여정을 촬영한 약 12분 분량의 흑백 기록영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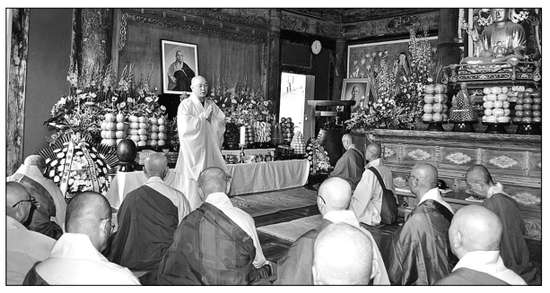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이 필름을 2014년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던 중 금강역사영화제에 최초로 공개했다.

종걸 스님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에게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로 금강역사영화제에 출품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의 선지식을 기리며"

내소사, 우암당 혜산 스님 13주기 추모재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6월 18일 대웅전에서 호남의 대표적인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혜산 스님과 수행모임을 함께한 지성 스님을 비롯한 석우회 스님들과 도솔회 스님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문중 원로와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 재가불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혜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0일 미륵기도의 회향

선운사 도솔암, 6월 20일 회향법회 봉행



지난 2015년 9월 입재한 고창 선운사 도솔암의 1000일 미륵대제가 6월 20일 회향했다. 이날 도솔암은 경내 특별법단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1000일간 정진한 불자들의 원력을 치하했다. 도솔암은 그동안 매월 음력 7일 33개월간에 걸쳐 미륵기도를 했으며, 회향법회에서 영산작법과 축원·발원 후 인근 도솔제로 이동해 방생법회를 열고 1000일 기도 여정을 마무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르신 화재예방 안전캠페인

우면福-현대제철, 서초구서 진행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찬)과 현대제철 경영지원본부는 6월 18~19일 서초구내 어르신들을 위해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현대제철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독거 및 장애어르신 60가정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방법 안내 및 소방물품 전달봉사를 했다.

윤호섭 기자

신화 종합 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 특A급 가격 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 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양도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철원, 대지 4.800평, 대웅전, 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 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 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의정부, 사찰 대지 4,8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위치 좋음, 양도가 15억원
- 그 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우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 기침, 트림, 하품, 진동, 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빛의 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 빙의, 영가장애, 무속병 원인없는 질병, 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 사업, 이혼, 사별, 별거, 자식, 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 몸, 마음, 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 + 중단전(감성) + 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